

광주·전남 주식투자자 20만 돌파

지난해 증시 호황으로 '株테크' 열기 확산 광주, 경제활동인구 중 16%가 개인투자자

지난해 국내 증시 호황에 힘입어 광주·전남 등 전국의 주식투자자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의 경우 최근 1년새 주식투자자가 두자릿 수 이상 늘어나면서 지역 내 주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19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전남의 주식 투자자 수는 20만4천6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06년(18만5천389명)에 비해 10.4%(1만9천235명) 늘어난 것으로,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158만4천명)의 12.9% 수준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주식 투자자 수가 10만6천578명에 달하면서 경제활동인구(66만3천명) 중 16.1%가 주식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남도 지난해 투자자가 9만8천46명까지 늘어나면서 1년새 11.8%(1만349명)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지역 내 주식 열기가 높아진 것은 지난해 국내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 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주식 열풍'은 전국의 경우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국내 유가증권시장(745개사)과 코스닥시장(1천

■지역별 주식투자자 현황

지역	투자자수	보유주식수
광주	106,578	490,692,473
대구	184,053	847,777,958
대전	111,319	441,740,079
부산	246,809	1,233,007,803
울산	135,475	512,340,643
인천	141,266	592,882,005
전남	98,046	281,831,329
전북	105,515	364,347,714
제주	24,441	92,674,785
충남	104,636	374,131,453
충북	85,088	259,618,761

22개 사)의 투자 인구는 총 444만907명으로, 1년새 22.9%나 늘었다.

더구나 국내 주식투자자 수는 전체 경제활동인구(2천399만명)의 18.5%에 달한다. 국내 경제활동인구 5명 중 1명 가량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총인구(4천845만명) 대비 주식투자비율도 9.2%로 199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 투자자가 273만8천명으로 2006년보다 21.9% 늘었고 여성 투자자도 164만6천명으로 24.7%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주식투자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63.0%에서 62.5%로 낮아졌다. 반면 여성 비율은 37.0%에서 37.5%로 높아졌다.

주식투자자의 평균 연령은 45.9세로 나타났으며, 코스닥시장 투자자의 평균 연령(43.0세)이 유가증권시장(47.1세)보다 4살 가량 젊었다.

1인당 평균 보유금액은 55세 이상이 1억원대로 가장 많았고 20세 미만은 2천만원대였다. 1만주 이상 대량 주식 보유자는 22만9천명으로 개인투자자의 5.2%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194조6천억원으로 개인 보유주식의 73%를 차지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30.9%로 가장 많았고 ▲개인(25.3%) ▲일반법인(21.0%) ▲기관(20.0%) 등의 순이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기업 실적·글로벌 유동성 뒷받침 코스피 2000 다시 간다

이미 적정수준 도달 지나친 낙관 우려도

19일 코스피지수가 장중 1,9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연초 비판론에 휩싸였던 증권사들이 낙관적인 증시전망으로 급선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상보다 탄탄한 기업실적과 글로벌 유동성의 뒷받침을 통해 올해 코스피지수가 2,000을 재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주가가 이미 적정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있다.

◆“펀더멘탈 호조 - 연내 2,000 넘는다” = 증권사들은 연초 국내증시를 비판적으로 보게 만들었던 여건들이 하나둘씩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낙관론의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초 전 세계 금융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신용경색 사태가 진정되면서 위험자산인 주식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데다 주가의 근본적인 결정요인인 기업 이익마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동부증권의 지기호 투자전략팀장은 “미국의 과격적인 금리인하로 저금리 기조가 다시 정착되면서 기업의 금융부담이 줄어들었다. 원화약세로 수출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는 '신2차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며 "기업이익은 이러한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부증권은 코스피지수가 3·4분기 초까지 1,941~2,000 수준까지 상승한 후 9~10월 조정을

받고 연말에는 2,000~2,20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영증권의 김세중 투자전략팀장은 “미국의 경기침체라는 글로벌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2%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확인됐다”며 국내 증시의 펀더멘탈이 견조함을 강조했다.

신영증권은 올 하반기 코스피지수의 고점으로 지난해 고점을 소폭 웃도는 2,150을 설정하고 내년에는 상승 탄력이 더욱 강해져 12개월 내 코스피지수가 최대 2,3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시, 이미 적정수준” =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근의 지수 상승이 약세장 속 반등에 불과하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기업의 12개월 예상 주가수익비율(PER)과 배당수익률 등을 감안할 때 코스피지수의 적정수준은 1,847~1,902로 지수가 이미 적정수준에 이르렀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김학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의 단기적인 움직임이 늘 적정가치에 수렴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현재 코스피지수 수준은 결코 싸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기침체로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고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국내 기업의 이익 증가세도 결국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신한투자증권의 주장이다. /연합뉴스



시원한 느낌 '자일리톨 니트' 광주시세계백화점 '로기디스 그린'매장이 여름철을 앞두고 착용감이 뛰어난 자일리톨 니트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자일리톨 성분이 수분과 만나 흡열반응을 일으켜 시원한 느낌을 극대화 해준다. 판매가격은 8만9천원. (광주시세계 제공)

한국 생활물가 세계 최고 수준

IMD 보고서 - 뉴욕보다 생활비 20% 비싸

우리나라 주요 도시 생활물가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스위스 국제경제개발원(IMD) 2008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의 한국부문 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활비지수는 122.4로 조사대상 55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IMD의 생활비지수는 미국 뉴욕시를 100으로 놓고 세계 주요국가 대도시들의 상품·서비스·주거비를 지수화해서 국가별 생활비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우리나라 생활비 물가는 조사대상 55

개국 평균(86.3)보다 4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생활비 지수가 122.4라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우리나라 소비자가 미국 뉴욕의 소비자보다 20% 이상, 55개국 평균 소비자보다 40%이상의 비용을 더 지불한다는 의미다.

IMD가 각국별로 조사하는 물가관련지수는 소비자물가(CPI)와 상품·서비스·주거비 등을 계산한 생활비지수, 주요도시에서 방문객짜리 아파트를 빌렸을 때 드는 월별 비용, 주요 도시에서 사무실을 빌릴 때 1㎡ 당 드는 비용 등 4가지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구조조정 '칼바람' 하반기 신규채용도 끊길라

정부부처 통폐합에서 시작된 구조조정 바람이 대기업 등 전체 공공 부문에 불어닥치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 추진의사를 밝히자 대기업 대부분은 하반기 신규 채용계획을 확정짓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결원이 생겨도 인력보장을 제 때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대기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민영화 계획에 강도높은 구조조정 지침을 담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기업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민영화 등 구조개편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 기업들은 신규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거나 채용을 미룬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대기업 신규채용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전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상반기에 나눠 70명 인력을 뽑았지만 당분간은 인력 충원계획이 없다.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도 올해는 채용을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한전KPS 역시 채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연합뉴스

토기공사와의 기능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는 지난해 195명을 뽑았지만 올해는 채용계획을 잡지 못했다.

신용보증기금과의 통폐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올해 채용계획이 없다.

대한주택보증은 당초 오는 9월 신규인력 공채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대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 여파가 나오면서 채용을 미룬 상태다. 매년 70~100명 정도의 신규인력을 충원해 온 지역방공사도 올해 공채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2년간 신규인력을 뽑지 않은 방송광고공사 역시 경쟁체제 도입, 분사 등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인력채용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신규채용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것과 별도로 기존 인력들도 구조조정의 불안감에 떨고 있다.

정부의 대기업 민영화 계획이 발표되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조직 축소 및 구조조정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이번 민영화 계획에 구체적인 구조조정 지침을 함께 담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기업 직원들의 고용 안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한 국세청장 "고의 탈세, 가산세 중과 방침"

한상률 국세청장은 19일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를 더 높여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지난 1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발표한 세무조사 과정 전면 쇄신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청장은 세무조사 쇄신과 관련한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대책에 대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인력을 줄이고 여기서 남은 인력을 불성실 납세자 조사에 투입하고 가산세를 더 높인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청장은 "세무조사 쇄신방안은 성실납세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강화하고 더 엄정하게 집행해야 성실한 기업의 의욕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정을 집행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어렵다"며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야 하고 고객 지향적인 행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납세자 중심에서 세무조사의 모든 과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 쇄신으로 세수확보에 문제가 없는 지와 관련

해 "정해진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특별한 부담은 없다"며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에 대한 보답차원에서라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추구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세수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친박연대가 '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 가족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사생활 보호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 그는 "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이고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국세청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전남대학교 자동화시스템	[국비무료]08년 이공계 현장연수사업 연수생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1	062-530-0450
화인피앤씨(주)	경리 및 총무업무 담당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5/21	062-951-3751
한-테크	도면제작 사원(CAD,MAX)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5/21	062-576-1751
월드ENG	프레스 금형 설계 경력자	고졸/경력5년	3000~3200	05/22	062-945-8798
(주)한진기공	2008년 기계설계계 정규사원	초대졸/경력무관	2400~2600	05/23	062-953-1642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계약제 기술직 사무직원 공개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3	062-970-0023
(주)세진텔레콤	sk중계기 설치현장 관리	초대졸/경력5년	2800~3000	05/23	062-576-8888
김동철찾는사람들	국내/해외 여행사전반업무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3	062-376-7666
현대삼호중공업	2008년 전역장공 공개	대졸/경력무관	4000~5000	05/23	061-460-3536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광주공정]반도체 제조(주)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5/24	062-970-8212
한국인스필(주)	제품 출하 및 원부재 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24	061-371-3000
동양생명(주)-본사	[TM1위]고객상담원250명(월평균430,주5일,TV방송중)	고졸/경력무관	4000~5000	05/26	02-518-2769
(주)성성정보	광주 정부전산통합센터 /서버(UNIX SE) 운영요원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5/28	02-517-7800
(주)한디엔씨	도로설계 가능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30	062-384-8457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제조업 유형자산 사상 최저 금융투자·현금 비중은 최고

韓銀 150개 업체 분석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제조업의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 비중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 투자지분과 유가증권 등으로 구성된 투자자산의 비중은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고 현금보유 비중도 3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설비투자를 꺼리면서 현금 유동성을 선호하는 기업 경영행태의 결과로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42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29일 한국은행이 연간 매출액 25억원 이상인 5천1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해 발표한 '2007년 기업 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의 유형자산 증가율은 4.9%로 전년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반해 주식과 직접투자 지분, 장기 대여금 등으로 구성되는 투자자산 증가율은 17.0%에서 30.8%로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총자산에서 유형자산의 비중은 2006년 38.6%에서 지난해 35.9%로 하락, 해당 통계의 편제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투자자산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18.2%에서 20.7%로 높아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흐름은 제조업체들이 고용유발 효과가 큰 국내 설비투자를 꺼리는 가운데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직접투자 지분과 주식 등 투자자산과 현금보유 비중을 늘리면서 위험성을 줄여나가는 경영행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형자산보다 투자자산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국내에 신규 일자리 창출을 부진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